**사랑하는 보내는 선교사님께**

뜨거운 여름, 동역자님들이 땀을 흘리며 섬기는 모든 사역이 가을에 추수할 열매를 기대하면서 영육의 강건함과 평강을 소원하며 문안을 드립니다.

이번주는 지진을 겪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내일 23일부터 2박 3일 동안 시 외곽의 호텔에서 트라우마 힐링 캠프를 준비하며 도우미로 참석하게 됩니다. 진행자가 현지교회 지도자지만, 자원봉사로 돕는 현지인들과 참여자들이 모두 회교도들이라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여름 여기도 유난히 더운데 한국인 사역자는 저를 포함해 3명이 돕기로 했는데, 자매 사역자가 저 혼자인지라 어린이와 청소년들 돌봄과 여성들 도우미로 제가 역할 분담을 받았는데 성령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체력을 간구하며 안전하게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기를 기도 부탁합니다.

지난 편지에 이웃의 정원 텃밭을 계기로 만난 G의(1남 5녀의 넷째) 가족들(부모, 언니들, 오빠, 여동생, 조카들)을 만나고 있는데, 영어교사인 F는(47살, 미혼) 지난주 장 수술로 입원해 있습니다. 수술 중에 다른 장기를 건드려 출혈이 많았고 총 8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는데 진통이 심한데도 무통 주사를 하지 않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이틀 전에는 고열로 고생했는데 어제는 조금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의료계는 실력 있는 의사들은 해외로 빠져나갔고 병원에는 의약품 부족으로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줄을 서 있다는 풍문이 있습니다) G는(무직) 미혼인지라 반려견과 집안 일, 화초와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내고 있어 거의 매일 저녁 식사 이후에 가서 심어 둔 들깨에 물을 주며 교제하는데, G와 G의 어머니는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성격으로 어려웠던 지난 이야기들을 쏟아내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잘 알아듣지 못하는 내용도 많습니다. (1층에는 G와 미혼 여동생 2명, 2층에는 부모님과 이혼한 오빠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주께 지혜를 구하는데 성령께서 이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고, 구원에 관한 이유를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생명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H 부인 가정, U 부인 가정, N은 여름 휴가와 더위로 가끔 연락하며 방문하고 있습니다.

E시의 S는 감염으로 왼쪽 다리가 불편하여 병원과 약을 복용 중이고, 여동생 M은 E시의 S와 함께 방학 휴가를 끝내고 유치원 개학을 앞두고 집으로 돌아올 때, 제가 공항에 마중 나가서 집까지 태워주고 교제하고 왔습니다.

파송 단체 관련 논의와 거주 비자발급 서류를 위한 은행 업무와 정기 건강검진을 위해서 10월 21일부터 11일 11일까지 일시 입국 예정입니다.

봄에 여러 곳에 심은 들깨가 잘 자라는 것을 보고, 이번에 인편으로 부탁해서 받은 김장무와 배추를 심고 있습니다. 지난 주 심은 G의 텃밭에는 무가 벌써 이 난 것을 보며 영혼들도 예수의 생명의 씨가 심령에 심겨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주께서 저를 통해 예수의 생수를 흘러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기도 속에 땅 끝과 이곳 영혼들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하며 소식을 전합니다.

2023. 8. 23. 김에스더 드림